

공노총의 위대한 도전과 빛나는 성취

“위원장·사무총장 첫 직선제 선거”

— 공노총 첫 직선제 선거, 성공의 의미와 평가 —



역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노총의 위원장·사무총장 첫 직선제 선거가 전체 조합원의 60% 선거 참여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훌륭하게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치러진 공노총 직선제 선거는 3개조의 위원장·사무총장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투표가 진행됐는데, 당초 우려와 달리 투표율 과반수를 훌쩍 넘기면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직선제는 참으로 험난한 도전이었다. 공노총은 국가공무원노조, 전국시도교육청노조, 광역연맹, 전국시군구연맹 등 연맹체로 구성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위노조만도 100여개에 달하고 단위노조 산하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지부와 지회 등이 전국에 싹틔울처럼 산재해 있는 조직구성이 직선제 선거를 치르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염려가 매우 컸다.

그럼에도 조합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노동조합을 지향하자는 결의와 합

계 2015년 상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도입 규약안이 통과됐고, 2016년 상반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를 이유로 직선제를 연기하는 내용의 규약안을 상정했었는데, 대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 연후에 몇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선거절차에 돌입했는데, 선거 초반에는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많이 제기됐다. 모바일과 인터넷만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부터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또한 선거운동과정에서 초반 관심도가 낮아 곳곳에서 회의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성공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공노총 선거는 여러모로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길목에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미한 와중이고, 그동안 무능불통 독재정부의 공무원 죽이기

와 노동탄압은 그 끝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공무원의 실질적인 대변자이면서 최대 공무원노조인 공노총이 향후 짊어져야 할 책무가 막중한데 만일 이번 선거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조직위상 또한 가파른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도전의 이면에는 이처럼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공노총 집행부와 전국의 단위노조위원장, 그리고 각급 연맹과 단위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 모두가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움직였다. 개별조합원들을 만나서 이번 첫 직선제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면서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공노총 만이 100만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조직임을 알리고 또 알렸다.

이제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돌아보면, 진정 위대한 도전이었고 공노총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무

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염원과 열기를 모아 향후 제대로 된 투쟁과 발전을 이루내는 일은 상당 부분 당선된 집행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선거 때처럼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거 결과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도 한결같이 공노총과 공무원을 위해 몸 바쳐 온 우리의 탁월한 리더이고 동지다. 그렇기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전국을 돌며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이바지한 각 후보들에게 조합원 모두와 함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엔 영광스러운 당선 의 열매를 차지한 이연월 위원장과 이창희 사무총장, 대의원대회에서 당선된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과 신동근·이명교·이순광·김상수 부위원장, 손현규 회계감사위원에게 축하와 함께 앞으로 3년간 공노총을 잘 이끌어 달라는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

이연월 위원장 당선자는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노동에 적대적인 경찰청 소속 공무

원이고 경찰관이 대다수인 조직 안에서 소수인 일반공무원들을 모아서 직장협의회를 꾸리고,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하였으며 행정부노조(현 국가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의 부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제도개선특위 및 단체교섭특위 위원장 등 십수년간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상당한 세월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공무원노동운동의 중요성과 자신의 경험을 소리높이 외쳐 왔다. 이제 그 준비된 경험과 실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조합원들이 직접 부여해 주었다.

사무총장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여타 당선자들도 그 면면이 공노총을 이끌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에 앞으로 3년간 제4대 공노총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는 점을 잘 헤아릴 것으로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책임자와 그 주변의 농간으로 엄청난 위기에 휩싸여 있다. 성실하게 살아 온 대부분의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찾고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지탱해 온 그룹은 공무원 조직이었다. 지금의 상황 또한 국민과 함께 울고 부대끼면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일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자들을 제대로 심판하는지, 국가정책이 소수 부자들에게서 다수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방향으로 고쳐지는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감사하고 추궁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소명을 안고 출범하는 공노총 제4대 집행부가 훌륭히 그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성원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면서 공노총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박수갈채를 받는 앞날을 그려 본다.

제1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임시 대대를 통해 제4대 임원선거 당선자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1월 10일(목) 대전 동구청에서 제1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연월 위원장 후보를 공노총 제4대 위원장으로 당선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2016년 11월 2일 오전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조합원 총투표인 직선제(모바일 및 인터넷PC)로 제4대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율 59.2%를 기록했으며, 기호3번 이연월 위원장, 이창희 사무총장 후보(47.9%)가 당선됐다.

이연월 위원장 당선자는 “함께 출마한 두 후보자분들의 뜻을 담아 공약을 완성시켰다. 함께한 두 후보자분들 선거운동기간 함께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부위원장 후보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날 대의원 209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부위원장 후보 중 수석부위원장에 최병욱(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에 김상수(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신동근(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교(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이순광(홍성군청공

무원노동조합) 총 5명의 후보가 당선됐으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손현규(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중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최병욱 후보자는 “내년에 공무원노조법을 꼭 개정하겠다”며 “다 같이 고생한 후보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1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 2016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 노사공동연구회 △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조합원께 드리는 글

공노총 제4대 위원장·사무총장 첫 직선제 결선투표를 사퇴하며...

성공적인 첫 직선제에 애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노총 대의원동지 여러분, 기호1번 위원장 후보 류영록입니다.

먼저 이번 첫 직선제 선거를 훌륭하게 치러내느라 불철주야 애써 주신 전국의 단위노조 위원장님들과 대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조합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첫 직선제는 참으로 험난한 도전이었습니다. 4개 연맹체, 100여개 달하는 단위노조와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산하 각 지부, 전국적으로 싹틔듯 퍼져 있는 수만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우려도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모바일과 인터넷만으로 치르는 선거라 성공가능성을 아무도 낙관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조직분란과 대정부협상력의 저하, 노동계에서 조직위상 추락 등 상상하기도 싫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멋지게 해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앞날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필연적 사명감으로 헌신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직 위원장으로서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제대로 잠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선되는가 여부는 둘째치고 현장을 돌면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참으로 안도하고 진정으로 편안합니다. 2014년말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반토막 날 것이라던 불통정권의 공무원연금개약을 최소화했고, 19대에 서 공무원 성과퇴출제 법안을 막아냈으며, 인사정책협의기구 노사공동연구회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의 인사제도

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라는 아젠다 창출과 각종 국가현안에서 팍팍한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이미지를 불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공노총 첫 직선제 성공이라는 영광스런 결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태로 극도의 혼미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럴수록 공무원들에게 거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 옥죄기는 우리의 정신과

부분을 파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 공무원의 대변자이자 최대 공무원노조인 공노총

이 지닌 소명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촌각의 여유라도 아껴서 전열을 정비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조합원동지들께 올바르게 보답하는 길은 결선투표가 아니라 1위 후보에게 모든 힘을 모아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동지들께서 보장돼있는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만 저의 진심어린 충정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이연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공노총이 더욱 탄실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동지여러분들 모두 내내 건승하시고 많은 성취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에게 보답은 결선투표보다 1위 후보에게 모든 힘을 모아주는 것”

“당선자 중심으로 공노총이 더욱 탄실하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로 타오르길 소망”

공노총,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대한 철회요구

- 공노총 협의안 마련 후 재논의 하기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1월 9일(수) 행정자치부 인사제도과를 방문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에 따라 공무원처우를 차별하려는 내용의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노총에서는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인사제도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표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지제도 확대정책은 오간데 없고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항목에 '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징계 여부' 등을 반영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 대비 10%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감액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들을 철방봉으로 매도하고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강행해 온 정부가 또 다시 지방과 공무원을 억누르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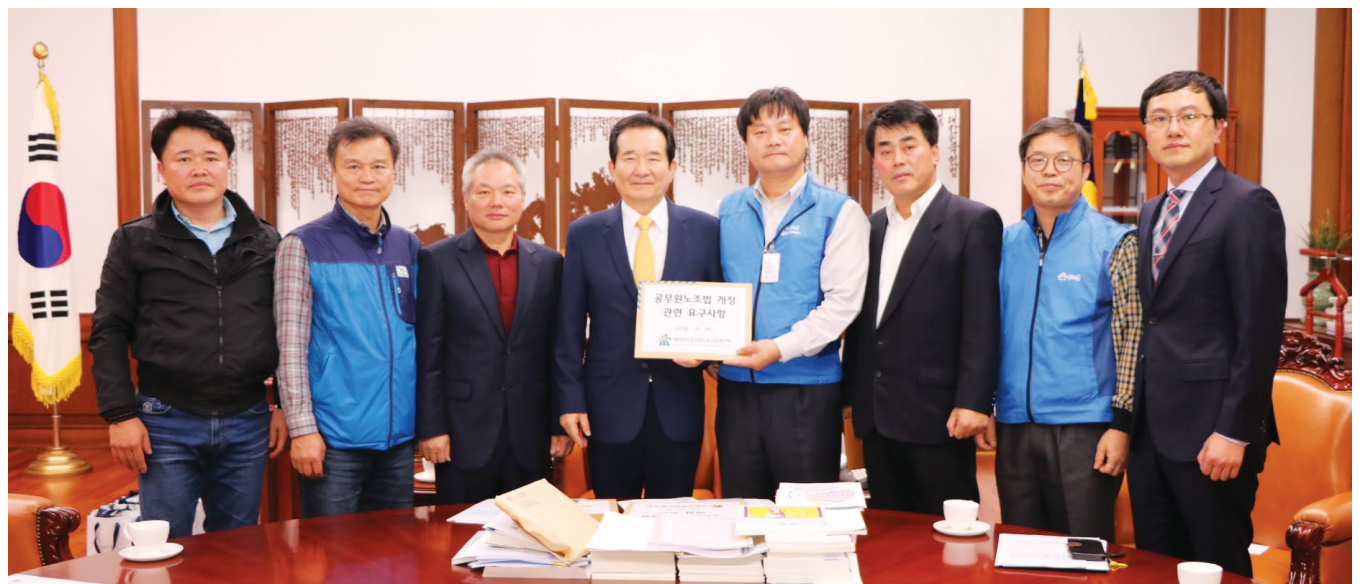
송지영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재정자립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편차가 있다. 이를 반영한다면 현장 공무원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는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 된 것이기에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인사제도과에서는 "2017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은 공노총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공노총 협의안 마련 후 재논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관련 맞춤형복지제도 기준액(현행 도시형광역단체~농촌형 기초단체) 7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대외협력위, 정세균 의장과 공무원노조법 개정관련 면담

-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요구 -



공노총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오재형)는 10월 26일(수)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대외협력위원회는 정세균 의장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조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재형 위원장 등 대외협력위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가입범위 확대 및 설립범위 축소, 근로시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는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환노위를 통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평소에도 공노총 추진현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택 2016 공노총 제4대 임원선거 이연월 위원장-이창희 사무총장 당선자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경청, 조합원과의 소통·신뢰를 더욱 공고히 결속

공노총은 2016년 11월 10일 제1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제4대 위원장-사무총장 당선자를 발표했다.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치뤄진 공노총 첫 직선제이며 첫 온라인 투표인 제4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는 총 투표율 59.2%의 기적같은 참여율 속에서 기호 3번 이연월-이창희 후보가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항상 현장에 시선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하면서 동지들 서로 간의 소통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결속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왼쪽부터 위원장 당선자: 이연월, 사무총장 당선자: 이창희

이번 공노총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감회는?

사실 특별히 당선된 감회라고 할 만한 느낌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소회를 느낄만한 여유조차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이번 직선제 선거가 공노총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보니 선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유효 투표율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고, 선거운동의 범위가 전국이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선거 기간 중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초대형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주변 환경도 선거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당면 현안들을 파악하고 업무 인수를 준비하는 한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 맞춰 앞으로 공노총이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느라 사실 선거 때 이상으로 바쁜 상황입니다.

이번 공노총 첫 직선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 각각 한 가지씩만 듣다면?

보람 있는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소에는 얼굴 맞대고 손 한 번 잡아보기도 힘들었던 전국의 많은 동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게 하다보면 의도와 무관하게 현장의 동지들을 가까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전국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동지들을 직접 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건상 깊은 얘기 한 번 변변히 나누지 못하고 짧은 순간 얼굴을 마주하면서 간단한 몇 마디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대부분이었지만, 작은 동네의 읍면 사무소부터 대도시 광역 단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지들을 두루 마주해본 경험은 정말 평생 잊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이라면 아무래도 제한된 선거 기간에 맞추느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매년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는 여정이다 보니 평소보다 더 긴장하게 되면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래도 이번 선거 기간은 제가 노동조합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위원장 당선자께서는 공노총 위원장이 되기까지 남다른 역경을 이겨내 온 공무원노동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동안의 노동운동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우선 질문에서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다른 노동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노동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의 공노총이 있기까지 정말로 남다른 헌신하신 여러 선배들과 진정으로 산 증인이라 불리어 마땅한 많은 동지들 속에서 함께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수고하신 분들의 성과를 계승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노동조합 운동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현장'과 '신뢰'입니다. 현장은 문제와 과제가 있는 곳이자 동시에 답이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 동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뢰는 내가 아닌 우리로 존재할 수 있고, 모든 투쟁의 핵심 요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한 평생을 안고 갈 모토이자 금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경찰청에서 직장생활과 함께 공무원노조 운동

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운동을 시작한 동기도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동지들과 다른 노동조합 운동가들이 그러했듯이, 공직사회의 일선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서 보다 당당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열악한 현실과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하는 지극히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항상 동지들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노동조합을 해오면서 부딪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경찰조직은 같은 행정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훨씬 더 경직된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계급과 서열에 따른 상명하복의 경직된 질서가 지배하는 체복조직이었고, 조직 운영이 사법경찰관들이 주무하는 수사, 치안업무 위주로 돌아가면서 그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일반 행정업무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는 것이 관행처럼 당연시 되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남성 우위의 고루한 사고에서 비롯된 편견까지 더해지면서 경찰청 조직에서 일반 행정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경찰청 지휘부와 정부를 상대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저와 조합으로 성장하기까지 조합원 동지들과 맺어진 굳건한 신뢰는 늘 강력한 투쟁력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내부적 신뢰는 다른 연맹, 노조들과의 연대로 확장되어 지금의 공노총 설립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평소 공노총 안팎에서 저를 아는 분들로부터 저에게 투사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것은 저의 개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성장해오면서 만들어진 집단적

특성이 저에게 깊이 각인된 모습이 그런 식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도 항상 현장에 시선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청하면서 동지들 서로 간의 소통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결속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 위원장 당선자 포부

앞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노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임기 전반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 기조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노총 조직의 양, 질적 내실화를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체 조직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미조직 현장, 활동이 정체되거나 분열된 현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노총 10년의 역사와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부와 임원, 조합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의 범위도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노사관계부터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시사교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쳐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대표하는 진정한 노동조합의 토대와 뿌리를 더욱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노총의 대외 연대와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공노총은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선배 동지들의 헌신과 노고로 탄생하고 성장해온 소중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공노총은 현직들만의 노조가 아니라 미래의 공무원 후배들이 계승하고 성장시켜나가야 할 조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공무원들만의 단체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이 나라 전체 노동계의 일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중 전공노와 전교조는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교총 등 여러 노동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유력한 방안이자 동시에 우리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 과제들을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입법 문제로 해결해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투쟁 전략의 구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목도하고 있듯이, 선거 기간 동안에 급부상한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듯이,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

공직 체계가 사적 관계에 의해 제멋대로 휘둘리면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우리 공노총 활동의 기본 방향도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공공성을 복원, 수호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그동안 對 정부 협상에 국한되었던 것을 對 국회, 對 정당으로 다변화하는 디딤돌이자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면한 성과평가제 및 성과연봉제 폐지와 저성과자 퇴출 법안 저지 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청와대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횡행하는 또 다른 비선실세들의 행정 농단을 적결하는 과제도 새로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개편하여 전면 개정 또는 일반 노조법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공무원 연금 개편 이후의 후속조치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며, 연구사와 지도사 등의 직급체계 개선, 소수직렬 직급 조정 등 각종 현안도 공직사회의 정상화에 기반한 대 국민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라는 보다 큰 국민적 명제에 포괄하여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노총은 그동안 이루어온 성장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보다 진일보한 과제들을 성취해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4기 임원진들도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과 결속이 필요한 만큼 조합원 동지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사무총장 당선자 포부

저는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우분)노조 지부장에서부터 동노조 위원장을 거쳐 공노총의 사무총장에 이르기 까지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1. 사심 없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2. 할말은 하는 당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듯한 두가지 원칙은 역시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있는 노동운동, 할말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어용노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노총의 위상에 맞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성어를 마음에 담아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총장의 덕목으로 水善利萬物而不爭(수선이만물이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공을 다투지 않는다)을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노총 제4대 임원선거 부위원장 당선자

공노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든다면?

각 단위노조를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동지들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꼭 부탁한다고 당부할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지금까지 옳은 길을 위해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국토부노조 현안도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선거를 치뤄야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바쁜 일정 관계로 많은 조합원 분들을 만나뵙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고득표로 당선되었는데, 어떤 점이 대의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10년 째 제자리에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공무원노동활동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108만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제대로 된 노조활동으로堂堂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라는 것이 모든 동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간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 투쟁의 최일 선에 섰습니다. 국회, 정계, 언론, 교육 등 각계각층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한 결과, 법 개정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분들까지도 많이 기대하고 표를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꼭 쟁취하라는 동지들의 뜨거운 명령으로 듣고 반드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공노총은 성과퇴출제 반대투쟁,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자존감 회복운동 등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금, 눈감고 귀 닫은 권력자와 위정자들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도록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며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과 반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공노총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노총이 되도록 그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연월 위원장 당선자와 함께 공노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안에 우리의 숙원사업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주요공약

- 탄탄히 구축한 국회·정부·언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성과퇴출제 저지투쟁 강화!
- 인사정책 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재개!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행정실의 법제화 확립!
- 시간외 수당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인상!
- 6급이하 정년퇴직자 특별승진제 도입!

주요경력

- 現) 행정부노조 공무원노조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국토교통부노조 위원장
- 現) 행정부노조 부위원장
- 現) 공노총 수석부대변인
- 現) 공노총 대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최 병 옥**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당선자 **신 동 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주요공약

- 성과연봉(퇴출)제 기필코 저지
- 현실에 맞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쟁취
- 공무원 대변할 수 있도록 공노총 위상 강화

주요경력

- 前)경남도청노조 사무총장
- 現)경남도청노조 위원장
- 現)광역연맹 보수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위원

공노총에서 공격수 역할을 할 것! 노동여건 후퇴에는 강력한 투쟁!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든다면?

현장에서 급한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거의 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소통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몇 분께 전화나 문자로 인사드렸는데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격려였지만 공노총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던 단위 노조 위원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역주의나 연맹주의를 떠나 더 큰 공노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노동조합은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분을 만들고 계파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쪼개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더 크게 화합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우리 조합원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겠지만,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지들을 안아나갈 때 더 큰 공노총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선거 당일 정견 발표에서 대의원들께 밝혔듯이, 저는 공노총에서 공격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동여건을 후퇴시키려 하는 자에게는 강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조합원의 공노총, 소통하는 공노총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든다면?

우선 이번 공노총 임원선거에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가 유일하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 하였기에, 후보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각 단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우리 공노총 발전에 따른 고언을 주시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셨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크게 없었으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혼인데 집을 오래 비워 새색시에게 좀 미안하더라구요.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출마에 즈음해 말씀드렸듯, 저 이명교는 부위원장에 출마한것은 오직,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보나오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 선거당시 동지들께 맹세했던 선거 공약은 꼭 실천할 것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강한 투쟁과 한편으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원원도 필요하기에 이두 방식을 병행 하도록 할것입니다. 특히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강한 공노총 건설을 위해 조합원을 위한 공노총, 현장에 답이 있기에 소통하는 공노총, 동지들을 위해 "열 마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서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습니다. 지난 12년의 활동보다 더 바쁘게 뛰며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공약

- 성과평가제 및 공무원퇴출제 저지
-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따른 65세 정년연장
- 우정청 설립
- 초중등교육법 개정(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 개선)
- 지방공무원 무보직 사무관 확대
- 정책노조로서의 공노총 위상 확립

주요경력

- 前)공노총 사회공공성특위 위원장
- 前)연금특위 위원
- 前)직종개편 특위 위원
- 前)문화체육관광부노조 4~6대 위원장
- 現)문화체육관광부노조 7대 위원장
- 現)행정부노조 부위원장



부위원장 당선자 **이 명 교**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 공노총 제4대 임원선거 부위원장 · 회계감사위원장 당선자

조합원 여러분들께 저는 리베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듣다면?

우선 성원해주신 공노총 대의원 및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직선제 선거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직선제를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단위노조의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실시와 직접방문 등의 홍보를 통하여 59.2%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각 실과,읍,면 등 현장을 2회 이상 직접방문하여 선거를 독려하여 이룩한 직선제의 성공은 공노총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것보다는 유선과 문자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직접 뵙지 못한 대의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제가 정견발표에서 말 했던 것처럼 공무원노조법 개정, 성과평가제 폐지는 위원장의 공약으로 속명으로 여깁니다. 부위원장으로 하고 싶은 일은 첫째 공무원 직급체계를 개선해서 불합리한 인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는 일입니다. 둘째 조합원 교육 및 핵심간부의 교육활성화를 통한 활동가 양성과 타단체에 뒤져있는 홍보를 확대하여 위상을 강화코자 합니다. 셋째 5개 연맹체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 저는 배구경기의 리베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위원장들의 각자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력의 극대화도 힘있고 단결하는 공노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4대 임원과 함께
4랑하는 14만 조합원을 위해
42.195km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주요공약

- 공무원 직급체계개선
- 조합원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한 위상강화
- 공노총 조합원 화합 및 단결

주요경력

- 現)홍성군청노조위원장
- 現)시군구연맹 사무총장
- 現)충남지역연맹 위원장



부위원장 당선자 이순광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당선자 김상수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주요공약

- 총연맹 미가입 노조 영입으로 조직 활성화
-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연맹 가입 유도
- 국회·방송·언론·정부 상대 주기적 간담회 개최 (공무원 연원 해결 및 총연맹 사업계획 홍보)
- 공노총 산하 연맹 업무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

주요경력

- 前)전북연맹 부위원장
- 前)시군구연맹 부위원장
- 現)공노총 연금위원회 투쟁본부 위원
- 現)공노총 부위원장
- 現)익산시노조 위원장

일치단결된 소통속에 염원하는 현안사업 성취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듣다면?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면서 정년평등화를 이룩하였듯이 공노총 제3대 부위원장 역할을 통해 공무원연금투쟁의 역경속에 단위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진 및 조합원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연대의 힘이 소중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공노총 제4대 부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직함 또는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본질을 흐리지 않고 임하였습니다. 4개 연맹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단위노조 위원장들에게 가식 없는 신뢰를 심어주었기에 부위원장 재선의 영광을 얻은 것이 보람입니다. 열두분이라는 부위원장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경륜과 해박한 지식이 풍부한 위원장들의 정신에 나 자신은 1백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남으며, 대의원 및 조합원 지지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 여운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공노총 제3대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공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또는 단독노조 및 복수노조를 통합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김상수는 제4대 부위원장으로 서 이연월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지도부는 물론 4개연맹 위원장 및 단위노조 위원장들과 일치단결된 소통속에 제4대 공노총 공약은 물론 1백만 공무원들이 염원하는 현안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동질감 형성은 물론 공노총 가입에 "발로 뛰면서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심없이 힘을 모아 깨끗하고 당당한 공노총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듣다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공노총의 변화와 혁신의 첫번째 과제인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초선으로서의 인지도 한계, 그 속에서 저의 포부와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노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포부는?

가장 보람있는 일과 힘들었던 일 보다는 회계감사위원장이라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노총이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의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정성으로 모아주시 조합비의 소중함과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한뜻으로 나아갈때 깨끗하고 당당하게 활동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새출발하는 제4기 이연월 위원장호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않고 사심없이 힘을 모아 대의를 위해 바르고 당당한 공노총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요공약

- 조합원이 공감하고 진정 바라는 회계 감사
- 투명성 · 공정성에 근거한 정확한 감사
- 일정규모 이상 사업 공개경쟁 입찰 도입 (세부 내역 공개)
- 예산 집행에 따른 사용내역의 확실한 결산

주요경력

- 前)구미시청 회계과 근무
- 前)구미시청공무원노동조합 총무부장
- 前)경북도청환경연수원 예산 회계 담당
- 前)경북도청 여성정책관실 관련 업무기관 회계감사 실시
- 現)경북도청노조 7기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당선자 손현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공적인 '공노총 제4대 임원선거' 이렇게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5개월 간 임원선거 추진과정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자.



2016.6.14 제15차 중앙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송용훈(해수부 사무총장), 서경섭(경기교육 조직국장), 최경남(서울시 부위원장), 김상우(인천교육 사무총장), 김상윤(군산시 위원장), 황희형(완주군 위원장), 김희식(노원구 사무총장), 전봉기(대구시 선거관리위원장), 이호발(행정부노조 조직국장)



2016.6.20 선관위원 당선자회의에서 위원장 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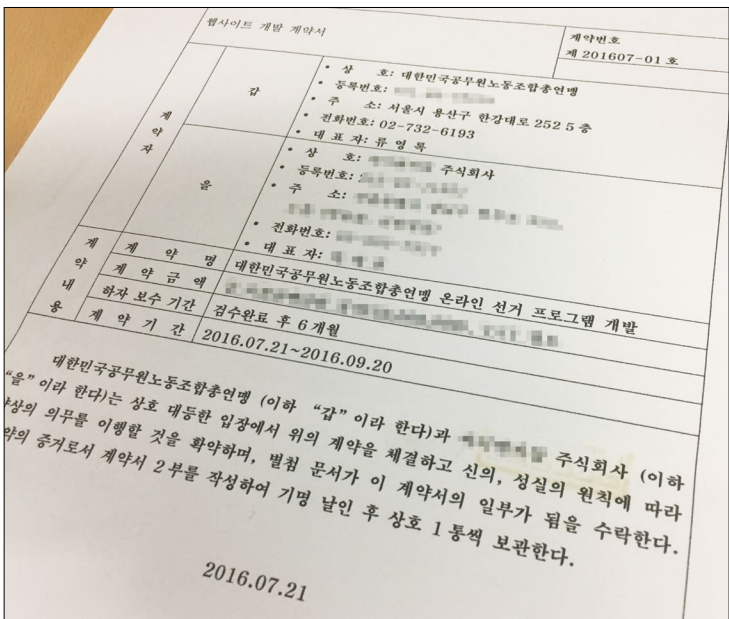
○ 위원장 : 김상윤(군산시 위원장)

○ 간 사 : 서경섭(경기교육 조직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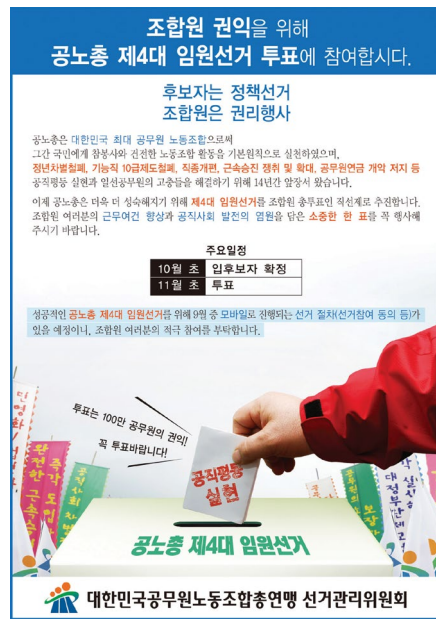


2016.7.14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 주요결과 : 투표방식은 모바일선거를 원칙으로 함



2016.7.21 선거 프로그램 개발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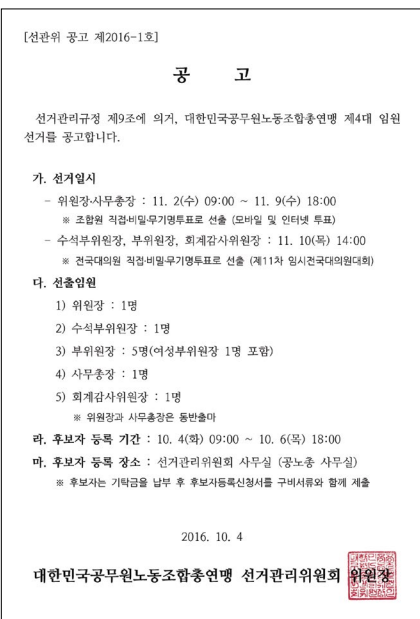
2016.9.12 투표 참여 홍보 웹포스터 게시



2016.9.26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 주요결과

- 선거일정 확정
- 선거권 부여기준 확정 : 2016년 3월분 총연맹비 납부기준
- 개인정보 미동의자도 홈페이지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016.10.4 선거공고



2016.10.7 선관위 홈페이지 개설



2016.10.7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 주요결과

-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후보자 자격심사
-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후보자 확정

[선관위 공고 제2016-2호]

공 고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공고합니다.

가. 위원장·사무총장 입후보자

기호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1	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류영록	남	5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고영관	남	47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3	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담노동조합	이연월	남	5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4	공무원노동조합 행정부담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이창희	남	51	행정부담노동조합 회장
5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이창희	남	50	행정부담노동조합 사무총장

* 각 후보자의 위가 위원장, 이하가 사무총장 입후보자임

나. 부위원장 입후보자

기호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1	행정부담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오성택	남	49	행정부담노동조합 위원장
2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김상수	남	55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3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김원태	남	49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4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김순환	남	49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박현자	여	48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6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김갑식	남	55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7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김원호	남	52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8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이관우	남	44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9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최병욱	남	43	행정부담노동조합 위원장
10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신동근	남	42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11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이옥경	여	47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위원장
12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이영교	남	40	행정부담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위원장

다. 회계감사위원장 입후보자

기호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 경력
1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손현규	남	48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공무원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김상현	남	47	행정부담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우분)) 위원장

2016. 10. 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10.7 후보자 공고



2016.10.10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홍보 포스터 배포



2016.10.12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후보 홍보 포스터 인터넷으로 게시



2016.10.24 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 장소: 서울동작구 소재 더미디어시티프로그렉션
- 인터넷 생중계 진행 후 녹화 영상 홈페이지 통해 상영

[선관위 공고 제2016-3호]

공 고

선거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임원선거(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합니다.

○ 선거인은 [기호] 명이며, 선거인명부는 공노총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등록된 조합원 명부로 함

2016. 10. 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10.26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2016.10.28 투표절차 안내 리플렛 배포



2016.11.2~11.9 제4대 임원선거 투표 진행



2016.11.10 제4대 임원선거 당선자 발표

- 위원장 당선자: 이연월(경상청노조)
- 사무총장 당선자: 이창희(미래창조과학부(우분)노조)
-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최병욱(국도교통노조)
- 부위원장 당선자: 김상수(익산시노조), 신동근(경상남도청노조), 이명교(문화체육관광부노조), 이순광(충청남도청노조)
- 회계감사위원장 당선자: 손현규(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공적인 제4대 임원선거를 위해 전국 단위노조 홍보전 실시!



강원도청노조



대구노조



전남도청노조



천안시청노조



대전유성구노조



익산시노조



황청군청노조



영광군노조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4: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토론 주제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에 대한 공과를 분석
바람직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발제 김인재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장)

좌장 박태주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권혁 교수 (부산대학교)
노광표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류호상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장)
이규홍 노무사 (노무법인 나원)
이병무 정책연구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인상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